

시민들 환호와 동참 속에 화려함 더한 봉축

학 달라진 2013부산연등축제 현장

“원더풀~ 너무 아름다워요. 부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축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 겪은 최고의 체험이었습니다. 등불이 거리를 밝힐 때 제 마음도 밝혀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불교와 한국문화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인 무하마드 이스마일 (Muhamad Ismail · 25) 씨

2013부산연등축제가 크게 변모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동참하고 환호하는 축제로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2013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수불)는 5월 11일 부산 구덕운동장과 대청로에서 부산 연등축제 분행사인 봉축연합대법회와 제등퍼레이드 행진을 개최했다.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부산연등축제는 화려한 복식의 연희단 행렬과 대동한마당 행사로 시민들의 참여와 환호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은 봉축연합대법회 대회사에서 “부처님을 향해 밝힌 등불마다 지혜와 자비, 평화와 번영의 무량광명이 함께 비추길 기원 한다”며 “부산연등축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제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 밝힌 광명의 등불이 자성의 등불이

되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남북에 화합과 평화로 인도하는 감로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벌화에 이은 제등 퍼레이드는 구덕운동장에서 대청로까지 4km의 거리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진은 평소보다 짧은 구간이었지만, 화려한 연희단 퍼레이드와 장엄등등으로 시민들이 대거 운집해 변모한 연등축제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곳곳에 마련된 응원사, 축제풍선나뉘주기 등 주최 측의 다양한 노력이 곳곳에 엿 볼 수 있었고, 외국인, 청년층, 가족단위의 동참자 등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외국인 참여 대거 늘어 행진하며 환희심 가득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축제에 참가했다는 강나민(내원정사, 31)씨는 “환호 해주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때보다 즐거운 축제였다.”며 “거리를 행진하며 불자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가족과 함께 한 조미라(44)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장엄등이 많아서 행복해 하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 즐거웠다.”며 “은 거리에 가득한 연등을 보며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제등행진에 이어 펼쳐진 대동희향한마당 역시 문전성시였다. 1시간동안 집중된



부산연등축제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공연은 남녀노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무대로, 유진박, 비보이, 경기민요, 난타 공연 등이 마련됐고, 화려한 레이저 쇼와 하늘에서 뿌려진 꽃비로 시민들의 환호 속에 행사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가족과 함께 한 이인경(40)씨는 “비보이부터 경기민요 유진박 연주까지 애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것부터 어른들이 볼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해서 좋았다”며 “무엇보다 차와 매연이 가득한 거리에서 애들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어서 즐거운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불교총합회(회장 성문)는 5월 11일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관등행렬을 진행했다.

이날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지역 공동

체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이여 천태종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과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해명 정사의 봉축사에 이어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과 학생30여명의 대구교육의 안녕을 기원하는 서원문 낭독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각자 소망을 담은 100여 개의 오색풍선을 날리는 가운데 불꽃놀이까지 더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날 법요식과 관등행렬에는 이 지역 조계종과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법화종 등 각 종단신도 15000여 명이 동참했다.

17일 오후에는 천태종 대성사에서 대구 각 종단 지도자 스님들과 지역기관 기관장,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점등대법회가 열려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손문철 대구지사장

지역주민 함께하는 ‘용호장승축제’

용호총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랑과 효를 테마로 한 ‘제9회 용호장승축제’를 개최했다.

5월 10~11일 양일간 복지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춘성 관장을 비롯해 이종철 남구청장, 서영교 국회의원 등 지역주민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춘성 관장은 “‘우리동네 하나되는’의 모토처럼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동네 어귀에 우뚝 서서 마을을 지키는 장승처럼 용호총합사회복지관도 우리 마을 주민들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제는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장승제를 시작으로 지역 저소득 어르신 초청 ‘효 큰잔치’와 독거 어르신을 위한 ‘장승잔치’,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그리기 대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사하경찰서 경승단, 경찰자녀 장학금 전달

부산 사하경찰서 경승단(경승실장 해우)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개최하고 경찰자녀들을 위한 제1회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사하경찰서 직무교육장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사하구불교연합회장 법인 스님, 경승실장 해우 스님, 조성환 사하경찰서장 등 경찰 200여명이 참석했다.

해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과중한 업무에도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불사의 기본 틀 안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든 경찰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 회장 법인 스님은 봉



행사에서 “경찰의 직분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불자의 자세”라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은 경찰자녀 7명에게 총 210만원이 전달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현란한 것은 꽃이라도 안좋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미지는 때에 따라서 청량하기도 하고 그윽하기도 하다. 새벽녘 잠이 깨어 절 마당에 나갔을 때의 쯤쨍한 상쾌감이 청량한 기분이라면, 석양 무렵에 느끼는 편안하고 온화한 기분은 그윽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봄이 무르익으면서 온 세상이 꽃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매화를 필두로 동백,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로 이어지던 봄소식은 화사한 왕벚나무가 꽃을 피우면서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는 철쭉이 제철을 맞아 꽃을 피운다. 조금 있으면 무단이나 작약이 마당 한가득 탐스러운 꽃을 피울 것이니 사계절 중에서는 이때가 가장 생동감이 있고 희망적인 계절이 아닐까 싶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은 절집이라고 해서 예

외는 아니다. 절집이 자리한 산자락에도 봄은 찾아와 온갖 꽃들로 가득하며, 절 마당에도 이것저것 많은 꽃들이 피어 아름답지만 하다.

예로부터 절 마당에는 무단, 매화, 철쭉, 산수유, 백일홍, 앵두나무와 같이 키가 낮은 꽃나무나 작약, 난초, 나리, 국화와 같은 초화류를 많이 심었다. 주변 산에서 캐다 심은 소나무나 단풍나무 같이 키가 큰 나무는 마당보다는 건물과 떨어진 공간에 심어서 햇빛이 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공기도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절집에 심었던 나무나 초화류들은 하나 같이 맑고 그윽한 꽃색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꽃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비로워지고 넉넉해져서 마치 금방이라도 한 소식 얻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절집에 심었던 꽃나무나 꽃 풀들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현란했다면 아마도 그러한 마음이 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인가! 절집에서는 다른 사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꽃색을 가진 것들은 아예 심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산야에 자연적으로 나서 자라던 나무들과 꽃 풀들에 대한 번식에 성공해서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에 외국에서 수입된 꽃나무와 꽃 풀들도 지천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꽃나무와 꽃 풀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현란해서 오히려 전해보이는 것들이 많다. 만일 절집에 이러한 수입종들을 심게 되면 절집이 가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현란한 것은 꽃이라고 해도 좋지 않은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절마당에 심는 꽃나무들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현란해서는 좋지 않다. 경상남도 E사찰.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승(念誦) 모음

■ 염승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한계,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계, 장엄법, 부모은중경, 백백대참회문, 대불정능염심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필양심주경, 보광삼매론

■ 염승의법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넷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출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